

#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 지키기 시민모임 결성식 및 토론회 자료집

“걷고 싶은 도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가 문화도시다”

- 일자 : 1월 18일(수) 오후 2시~4시  
(1부 : 토론회, 2부 : 결성식)
- 장소 : 동구벤처빌딩
- 주최 :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 시민모임  
(☎ 514-2470)

##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 시민모임

서석초등학교 운영위원회·동계천번영회·나무심는건축인·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에코바이크·광주환경운동연합·참교육학부모회·광주시회  
(공동 간사단체 :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광주환경운동연합)

## ■■■■■■ 진행 순서 ■■■■■■

### [1부] 토론회

사회 : 이기훈(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 14:00~14:05 / 인사말 - 전영원(동구의회 운영위원장)
- 14:05~14:25 / 기조발표 - 박홍근(나무심는 건축인모임)
- 14:25~15:55 / 토론
  - 김용민(서석초등학교 부 운영위원장),
  - 이강수(동계천번영회회장)
  - 최동호(광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15:55~15:20 / 종합토론
- 15:20~16:00 / 시민모임 출범식(경과보고, 조직구성, 성명발표 등)

### [2부] 결성식

사회 김광훈(광주에코바이크 대표)

- 경과보고 및 조직구성 발표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성명발표 / 공동대표단

# 토론회

**위기에 처한 보행전용도로,  
-  
그 의미와 문화적 잠재력**

2017.01.18

박 홍 근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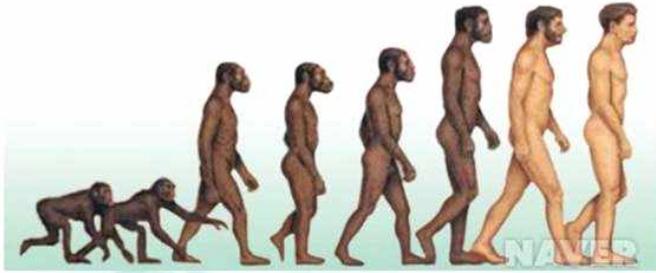
1

**왜, 걷기와 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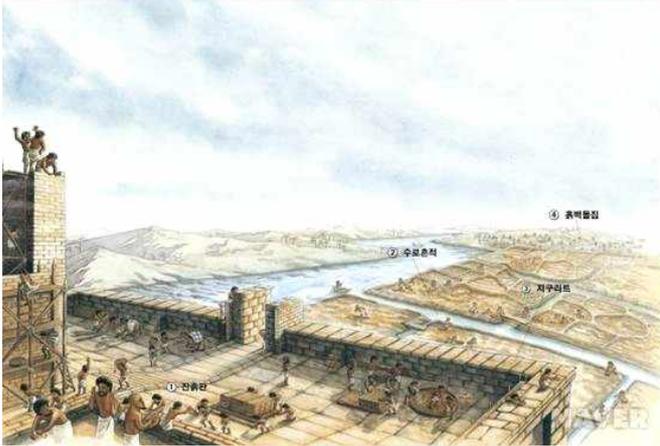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 !**

(일부 자료 : 이우홍교수 자료 참조)

2



400만년전 초기 인류 출현  
160만년전 걸기시작  
4만년전 현대적 인간으로 변모



5천년전 수메르 인 도시  
인간이 모여사는 도시 출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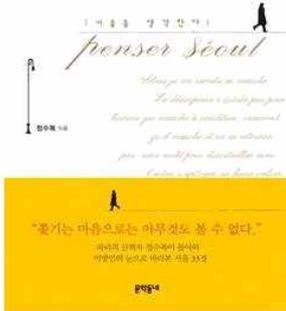
130년전 자동차 출현



현재의 우리 도시  
-  
자동차를 위한 도시  
걸기 힘든 도시

4

도시를 걷는  
사회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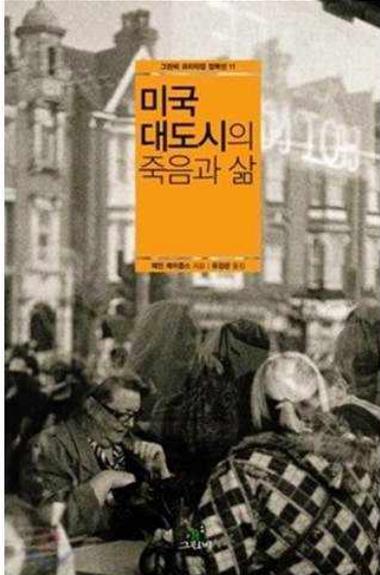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두 일어나 걸어야 한다.  
새로운 도시를 꿈꾸며...  
삶이 힘겨울수록 걸어야 한다.

(정수복)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의 방향은  
걸을 수 있고  
걸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길이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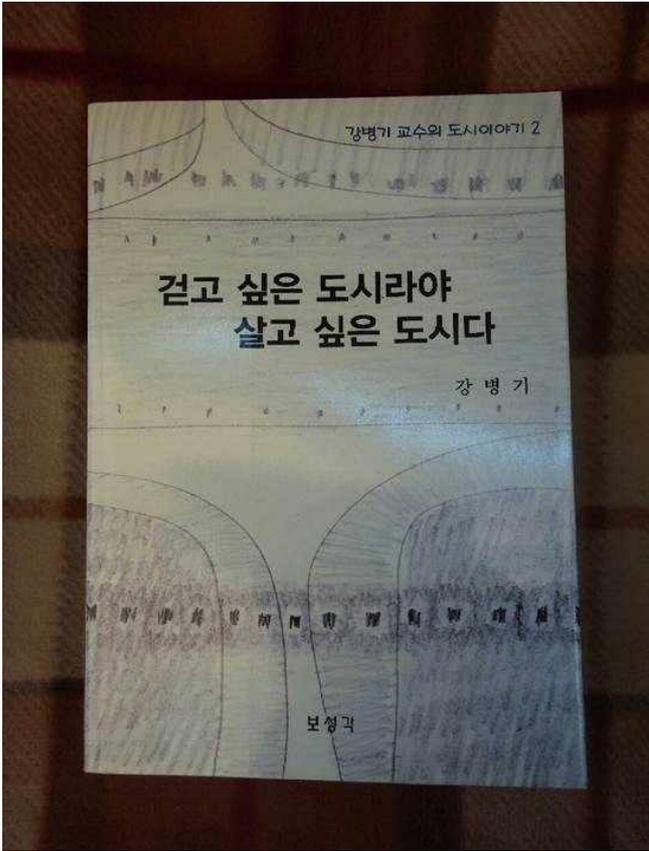
길과 보행로는  
도시의 주요 공공공간으로서  
도시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기(臟器)이다.

(제인 제이콥스)

jane jacobs  
1916 - 2008



6



걷고 싶은 도시라야

살고 싶은 도시다

(강병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대문: 활거지간선 2003년 4월 29일 용대문에서 바라본 청계교도로 모습



청계고가  
-  
청계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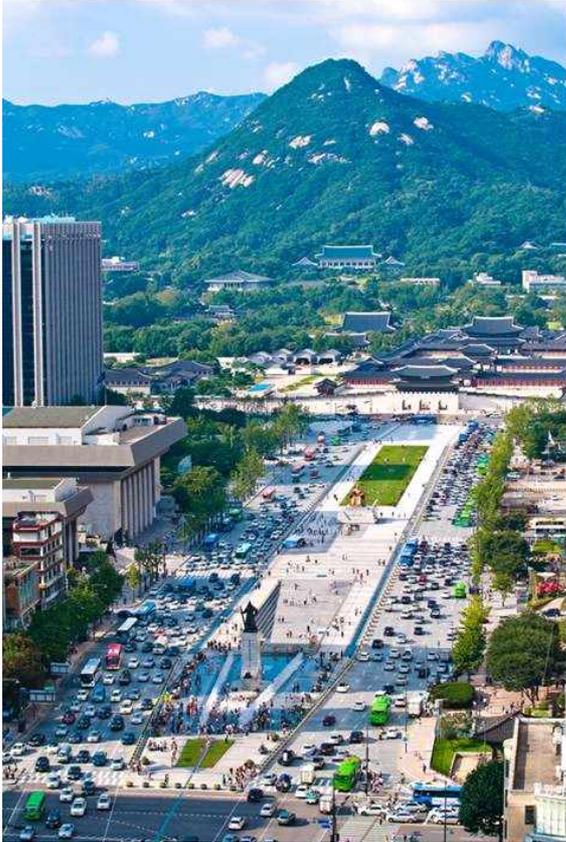


서울역 앞 고가차도



신촌 연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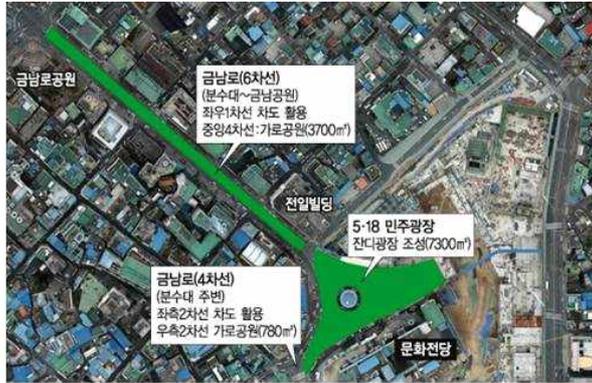


광화문 광장



금남로





서석초 앞 보행자 전용 거리



서석초 앞 보행자 전용 거리



서석초 앞 보행자 전용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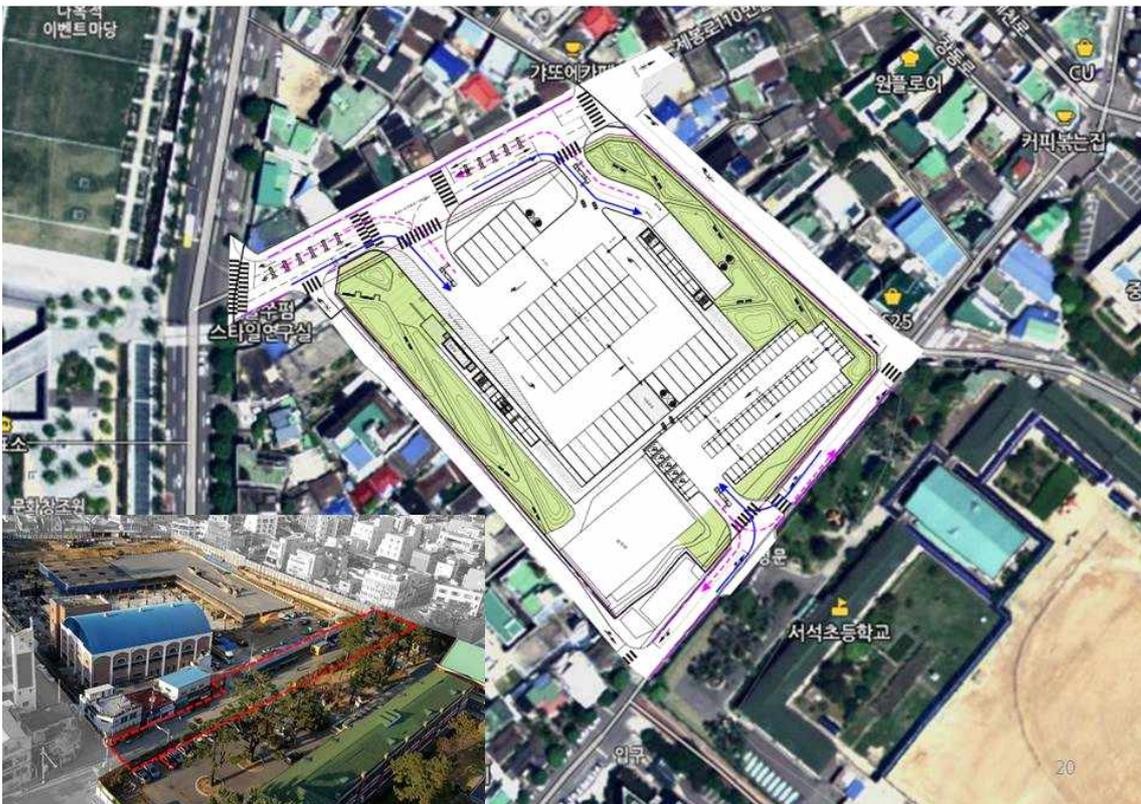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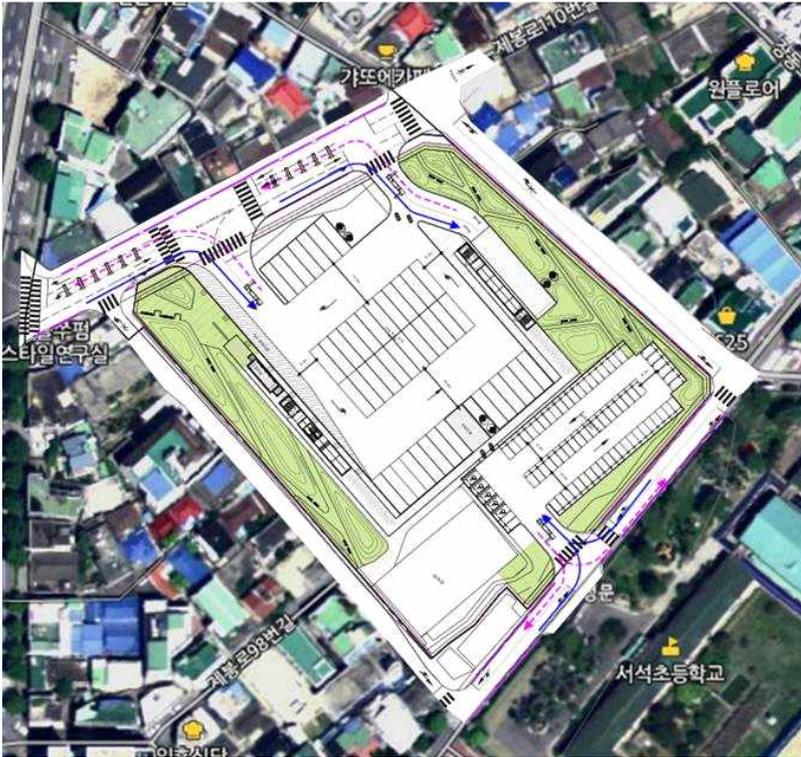


서석초 앞 보행자 전용 거리



서석초 앞 보행자 전용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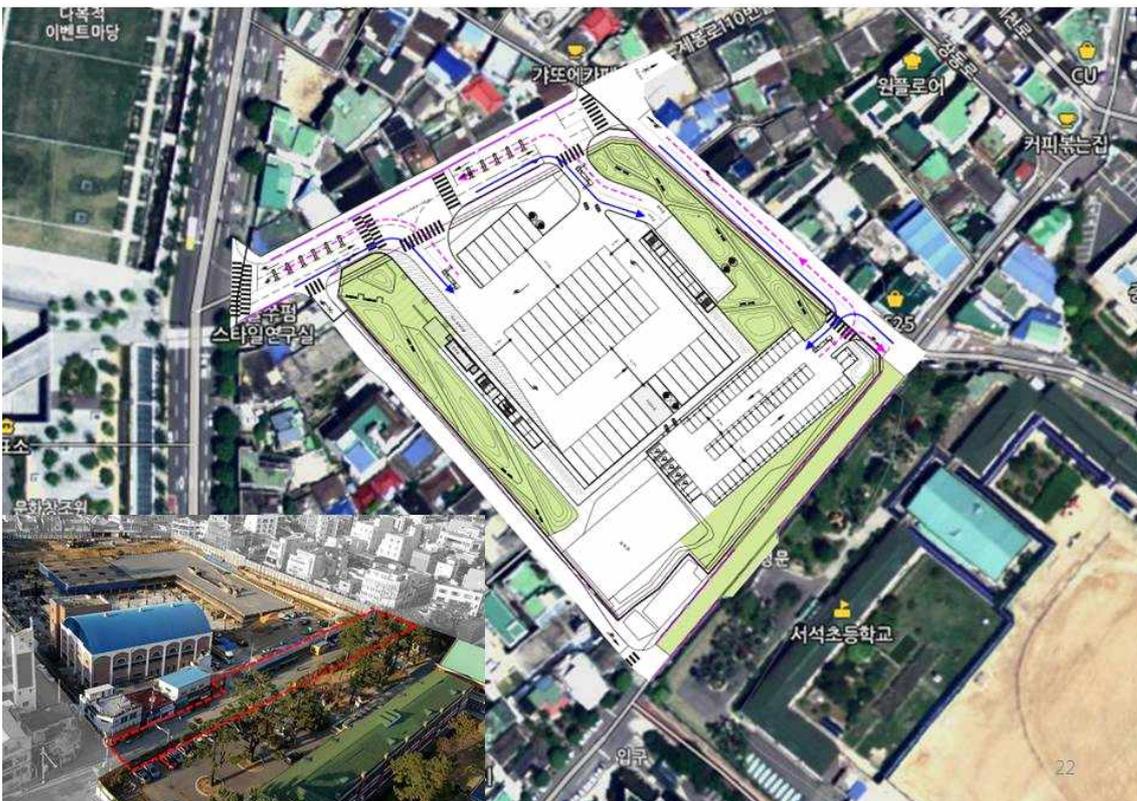


**기본현황**

10M x 130M  
-> 160M x 130M

**문제점**

1. 위협 받는 학생 안전
2. 사람중심 안전한 도시 정책에 역행
3. 문화전당과 광주시의 행정 편의적 발상
4. 잠재력 상실 위기
  - 보행자 전용공간은 문화거점, 도심재생의 거점
  - 도심속 광장 기능



三十輻共一(삼십족공일) / 서른개 바퀴살이 한 군데로 모여 바퀴 통을 만드는데

當其無(당기무) /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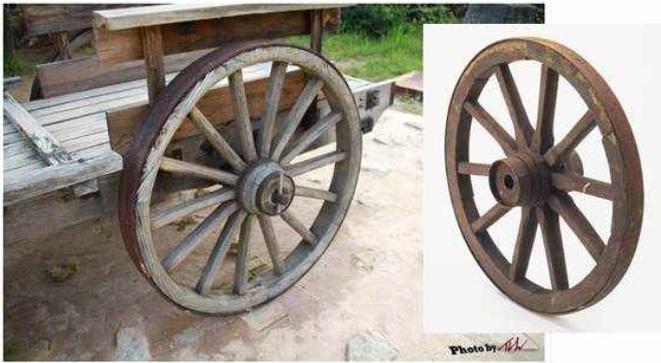
有車之用(유차지용) / 수레의 쓸모가 생겨납니다.

埏埴以爲器(연식이위기) /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當其無(당기무) /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有其之用(유기지용) / 그릇의 쓸모가 생겨납니다.

노자 도덕경 11장



##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전용도로를 지키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용민(서석초등학교 부운영위원장)

먼저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 지키기 시민모임 결성식 및 토론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합니다. 아쉽다는 것은 2014년 6월에 광주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서석초 앞 보행자 전용도로를 왕복 2차선 도로 개설 변경을 허가하고 2015년 2월 동구청이 허가를 하였는데, 그동안에 많은 단체와 분들이 노력하여 주셨는데, 이제야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 아쉽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이번 토론회와 결성식을 토대로 대안을 찾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입니다.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가 유지되어야 할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비전은 ‘열린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입니다. 더불어 운영원칙으로 4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본가치입니다. 이번 도로 개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비전과 운영원칙에 어긋납니다. 특히 인본가치를 운영원칙으로 삼고 있는 전당에서 그동안 보행자전용도로인 이곳을 인간이 중심이 되는 가치를 저버리고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가치를 운영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이번 결정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차가 먼저입니까?

아시겠지만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자전용도로는 초등학교 학생 166명이 매일 등교하고 하교하는 길이며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통행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또한 130미터의 길은 차로부터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2차선 왕복도로를 만들면 그동안 중앙도서관에서 KT로 갈려면 돌아가던 차들이 모두 이 길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량통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날 것이며, 학생보행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음 등 학습권침해, 분진 등으로 환경권까지 침해할 것이 명백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공사를 하

면서 우리학생들을 불편하게 했던 소음이나 분진은 당연히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녁에는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관계로 갓길 주차 등으로 도로가 몸살을 앓을 것이 뻔합니다. 낮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저녁에는 불법주정차로 이 거리는 변할 것입니다.

2015년 한해 동안 어린이교통사고는 전국에서 12,191건이었으며, 그중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41건으로 전체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를 왕복 2차선 도로로 개설한다면 아무리 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정문 바로 앞이 주차장 출입구입니다. 정문을 뒤로 하고 좌측 건너편은 문구점, 분식집, 학원이 있습니다. 그곳을 갈려면 건너가야 합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둘째, 아이들의 안전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주차장의 진출입구의 개설로 인한 비용편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만큼 더 중요한 일 일까요? 제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회 회의록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회의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회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발언은 거의 없고 어떻게 하면 차량을 어떻게 통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차량통행이 허용되면 진출입구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외부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체계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아이들과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주차장진출입구 체계를 변경하지 않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석초등학교 정문에 진출입구 오른쪽으로 바로 고원식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정문 바로 앞에 교차로가 설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학교 정문을 교차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속운행을 위한 고원식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정문 바로 앞이 교차로로 차들이 다니고 아이들이 건너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또한 도로폭원별 보행자 교통사고를 보면 사망자의 66.4%, 부상자는 63.5%가 3미터에서 6미터 미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석초등학교 도로를 개설한다면 도로폭은 6미터입니다. 또한 6미터 미만에서 교통약자 보행자 교통

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88.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분들은 130미터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 학생, 주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차없는 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서석초등학교 학생들, 관계자들, 그리고 주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일 겁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광주광역시 관계기관은 서석초등학교에 직접적인 공문을 보내지 못하고 동부교육지원청을 통해 의견수렴형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담당하지 못하는 행정의 처사입니다.

셋째, 보행전용거리를 보존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체험행사와 희망나눔장터 등 새로운 문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역의 주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귀중한 광주의 문화전당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주민의 협조를 구하지 않는다면 불통의 문화전당이 될 것이며, 이는 문화전당의 건립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종로구에 10개소의 보행전용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세종대로, 청계천로, 인사동길, 관철동길, 낙원동길, 혜화동 대명거리, 대학로 마로니에길, 감고당길, 대학로 8길, 혜화동 소나무길이 그것입니다. 이 거리에서는 요일별로 다채로운 문화행사, 여유로운 산책, 다양한 시민참여의 문화행사, 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제주 원도심에서도 차없는 거리조성을 하였으며, 진주에서도 차없는 거리 조성을 하였습니다. 차는 지나가지만 사람들은 머물립니다. 사람들이 머물러야지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이러한 보행전용거리를 늘려서 시민들의 심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130미터의 길을 보행전용거리로 지정하여 문화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요일별로 행사를 개최하여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거리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서석초 앞 왕복2차로 개설은 이러 이러한 이유로 어렵고, 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내야 되겠으니 광주광역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앞으로 진출입구를 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GS25부터 장동로타리 쪽으로 진출입구를 좀더 확대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으로 주출입구 진출 및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이 문제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이 모여 이 문제를 협의한다면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광역시, 서석초등학교, 동계천 번영회, 광주에코바이크, 환경운동연합 등 모두가 모여서 논의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중심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전하면 미래를 보장될 수 있습니다.

2017.01.18

감사합니다.



**결성식**

# 서석초등학교 정문 보행전용도로 훼손 관련 대응 경과

## 1. 기본현황

- 서석초 정문 앞 130m는 광주에서 유일한 학교 앞 보행자전용도로, 도로교통법 제 28조(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에 의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통해 결정
- 광주시, 문화전당 교통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주차장 출입구의 한 곳을 서석초 정문 맞은편으로 논의하면서 서석초 앞 보행자 전용도로를 왕복 2차선 도로 개설 변경 허가 승인(2014년 6월 광주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 옛 광주여고 자리에 문화전당 부속 주차장 건립 중(2015년 2월 동구청 허가)

## 2. 문제점

-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권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행위
-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표방한 광주시의 이율배반적 행정
- 생태와 환경의 조화라는 전당의 컨셉 훼손 및 도시공간 질적 향상 역행
- 문화와 도시재생의 거점 공간화 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의 훼손
- 지역과 소통 없는 광주시와 문화전당의 행정편의적인 발상

## 3. 진행경과

- 6월20일 : 서석초 정문 앞 보행자 전용도로 왕복 2차로 도로개설 인지
- 7월11일 : 동 사안 대응을 위한 5개 단체 모임(문제의식 공유)
  - ※ 광주환경운동연합,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나무심는건축인
- 7.18(월) : 5개 단체 2차 모임(공론화 추진)
- 7.19(화) : 5개 단체 명의 성명서 발표
- 7.21(목) : 5개 단체 3차 모임
  - ※ 꼬끼리 협동조합 참여, 연락단체 선정(광주환경운동연합), 단체 중심에서 지역 조직(모임) 등의 참여 확대
- 7.25(월) : 서석초 정문 앞 보행 공간 침해 대응을 위한 커피 파티 개최
  - ※ 지역 조직(모임), 청년, 시민사회, 문화단체 등 10여개 단체, 동 사안에 대한 인식 공유, 긴급 간담회 개최
- 7.28(목) : 서석초 정문 보행전용도로 훼손에 따른 긴급간담회
  - ※ 시민사회, 광주시, 동구청, 시의회 산건위원장,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20여명 참석
  - ※ 지역 주민 대표, 광주시 관련 부서 책임자와 간담회 / 시민토론회 개최키로
- 8.19(금) : 지역 주민 대표와의 간담회
  - ※ 서석초 보행로 주변 자생조직, 모임 등 지역 주민 10여명 간담회, 전체 내용 공유 및 협조방안 논의
- 12.16(금) 지역주민 간담회
- 12.23(금) 서석초 운영위원장 간담회
  - ※ 보행전용도로의 위기가 서석초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임을 확인
- 12.27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 지키기 시민모임(준) 1차회의

- ※ 지역주민, 서석초 운영위원회 등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지역조직, 시민단체와 연대체 구성
- 2017. 1. 5(목)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 시민모임(준) 2차회의
  - ※ 준비모임에서 결성식과 토론회, 서명운동 등을 진행기로 함
- 1.10(화)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 시민모임(준) 3차회의
  - ※ 2차회의 점검 및 역할분담
- 1.12(목) 거리 현수막 부착

< 향후 활동계획 >

- 주민 및 학부모 서명운동 : 2017년 1월 18일까지
- 거리서명운동 : 2017년 1월 18일(수)
- 청원서 광주시전달 : 2017년 1월 23일(월) 오전 11시
- 청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달 : 2017년 1월 23일(월)
- 광주시장, 문화전당장 면담요청

#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 시민모임

## 조직 구성(안)

- 공동대표 : 이강수(동계천 번영회 회장), 조기춘(서석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박홍근(나무심는건축인), 전영원(동구의회 운영위원장), 황영주(서석초 학부모회장)
- 운영위원 : 공동대표+참여단체별 1인  
이강수(동계천 상인회회장), 조기춘(서석초운영위원장), 박홍근(나무심는건축인모임), 전영원(동구의회운영위원장), 이기훈(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김광훈(에코바이크 사무국장), 김성훈(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김경희(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 간사단체 : 김성훈(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 참여단체 : 서석초등학교 운영위원회·동계천번영회·나무심는건축인·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에코바이크·광주환경운동연합·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서석초등학교 학부모회  
(이후 함께 뜻을 모으는 단체로 확대)

## 〈성명서〉

# 서석초 앞 보행전용도로의 차도변경은 어린이 안전과 시민 보행권 침해!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 130m는 광주에서 유일한 학교 앞 보행전용도로이고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공간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석초등학교 앞 보행자 전용도로를 2차선의 도로로 만드는 것에 문화전당이 제안하고 광주시가 허가한 것은 전당과 도시와의 연계 축의 하나인 공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문화전당과 광주시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특히, 공연자 전용주차장의 진출입구가 학교 정문과 마주하고 있어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의 보행권 침해하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광주시와 문화전당이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획을 바로잡아서 시민의 안전이 행정의 편리보다 우선함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도시가 보행공간을 유지하고 확대할 때 진정 교통약자들이 배려 받는 도시, 보행이 활성화되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며 이것이 문화도시 광주에 맞는 정책 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광주에 도심의 녹색공간을 선물한다는 점을 건축 설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인권도시, 어린이친화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도시 가치를 지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보행자전용도로를 확대하기는 커녕, 학교 앞 유일한 보행전용도로를 다시 자동차에게 내어주겠다는 것은 문화도시에 역행하는 발상이고, 사람중심의 인권친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윤장현 시장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전당측은 2014년 서석초등학교 앞 자동차 통행 제한 해제와 양방 통행을 결정하였던 것이 정상적 절차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어린이·보행자 안전의 중요성을 무시할뿐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결정된 것은 합리적 절차의 과정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의 해제, 왕복 2차선의 차도화는 보행자 사고가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50%이상 발생률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한 공간이 될 것이 뻔합니다. 또한 학교 인근이 학원밀집지역인데다, 많은 기업이 입주한 KT빌딩, 동구청 등이 위치해 차량 이동의 증가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교통체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모임은 지난해 보행전용도로를 존치하고, 주차장의 진출입구를 기존 도로와 접한 곳을 이용해 설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전당은 행정상 절차적 과정을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여전히 주민들과 시민들의 제안과 우려를 무시하고 지금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어린이들이 자동차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전용공간을 확대시키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확대는 못할망정 있는 기존의 공간마저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보행공간을 자동차 도로로 만드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서석초 앞 보행전용도로 해제와 차량통행을 결사 반대합니다.
2. 서석초 앞 보행전용도로가 안전한 공간으로, 보행의 공간으로, 문화의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3. 주민의견 수렴 없이 행정편의로 결정된 공사를 중단하고 이를 바로 잡기위해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는 시민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2017년 1월 18일

##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 시민모임

서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동계천번영회·나무심는건축인·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에코바이크·광주환경운동연합·참교육학부모회 광주시부·서석초등학교 학부모회

# 참고자료

# 서석초등학교 보행자전용도로 해제의 문제점

## 1. 기본현황

- 옛 광주여고 자리,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의 부속 주차장 건립 중
- 광주시, 아시아문화전당 교통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주차장 출입구(현재 계획은 3군데)의 한 곳을 서석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으로 결정
-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 130m는 광주에서 거의 유일한 학교 앞 보행자전용도로이며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도로의 차량운행을 제한함.
- 이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회를 통해 결정됨.

## 2. 문제점

### ① 위협받는 학생들의 안전

-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왕복 2차로의 도로개설은 어린이 안전을 포기하는 결정이며, 인근의 도로 이용형태를 보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지역 특성으로 보더라도 학원이 밀집해있고, 많은 기업이 입주한 KT빌딩, 동구청 등 교통 이동량이 많은 지역이며, 특히 보행자 사고가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50%이상 발생할 만큼 높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번 계획은 학생의 안전을 포기한 것임.
- 또한 주차장 출입구와 서석초등학교 정문이 마주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과 동구청과 동계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만들어져 도로이용률이 증가되어 학생들에게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건강과 환경적 피해도 유발하게 됨.

### ② 거꾸로 가는 정책, 윤장현 시장의 공약에도 위배됨.

- 광주가 지향하는 인권도시, 어린이친화도시는 사람이 우선되는 도시임. 특히 학교 주변은 어린이들이 자동차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전용공간을 확대시키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임.
- 기존 보행자전용도로를 확대하기는커녕, 다시 자동차에게 내어주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임.
-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자 전용도로를 2차선의 도로로 만드는 것은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윤장현시장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결정

### ③ 문화전당과 광주시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

- 문화전당 건립 초기에 랜드마크 논란에도 불구하고 ‘빛의 숲’이라 명명되는 현재의 건축 설계에 공감한 것은 민주를 상징하는 광장과 평화를 상징하는 녹색공원의 생성이 도시공간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과 생태와 환경이라는 미래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며, 문화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광주에 도심의 녹색공원을 선물한다는 점을 건축 설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 또한 문화전당이 조성사업의 비전과 목표가 응축되어 도시 전체로 확산되는 조성사업의 핵심이라면, 광주시의 주도적인 책임과 역할이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은 전당의 에너지를 도시 전력으로 실어 나르는 통로와 연계가 되는 것이다.

- 하지만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자 전용도로를 2차선의 도로로 만드는 것에 문화전당이 제안하고 광주시가 허가한 것은 전당과 도시와의 연계 축의 하나인 공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문화전당과 광주시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 ④ 보행자전용공간은 문화 거점,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잠재력을 갖고 있음.

- 서석초 앞 보행자전용도로는 과거 트렁크페스티벌 등 문화행사들이 열렸던 장소로 도심속 작은 광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전당과도 연계하여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아울러 도시재생의 축인 문화전당과 푸른길 공원을 연결하는 거점의 공간으로 도시재생의 잠재력도 매우 높음

- 도로는 내기는 쉽지만 한번 훼손된 공간은 문화 거점과 도시재생의 거점을 만들기는 어려움.

## · 개선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

- 일 시 : 2014. 7. 2.(수) 14:00 ~ 15:40
- 장 소 : 시청 소회의실(3층)
- 안 건 : 1건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5차변경)



{

· 개선대책심의위원회

※ 회의록의 내용 중 서석초 보행전용도로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함.

- ○○○○ : 서석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호구역답게 유색포장, 쉼스설치,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완벽하게 정비하고, 서석초교옆 도로의 블라드를 제거하고 양방향으로 운영해야 함. 학생수가 매우 적고, 과거에도 양방향 통행한 적이 있음

서석초교옆 통행제한된 도로를 양방통행으로 변경하면 여러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함

- ○○○○ :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부분은 관할관청과 협의하겠음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관할관청이 수용하도록 하겠지만 허가는 경찰청에서 관할하고 있음. 외부주차장 지하 진출입구를 한곳에 설치하면 진출입구에서 상충, 교통사고 등 위험하므로 분리하였음. 위원님 의견중 통행체계 변경(일방→양방), 통행제한 해제, 신호연동은 경찰청 관할로 최대한 협의하여 처리하겠음

- ○○○○ : 지하주차장 경사도를 고려하여 진출램프를 최대한 이격하겠음

- ○○○○ : 서석초교옆 통행제한 해제, 일방도로 통행체계 변경으로 동구청사 거리에 서석초교방면 도로 차량통행을 허용하면 오지교차로가 되므로 신호에 문제가 생김

또한 광주시에서도 금남로에 대한 트랜짓폴을 검토중에 있는데, 금남로에 차량이 진출입하지 못하고 장동로타리와 제봉로에 차량이 집중되면 외부주차장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처리하지 못함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분산정책을 세워야 함. 동명동 문화거리는 동구청에서는 고밀도아파트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람.

서석초교옆 통행제한을 해제하려면 경찰청과 협의하여 어린이.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사업시행자와 수립대행업체에서 오신 분들은 잠시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서석초교옆 통행제한을 해제하고 블라드를 제거하여 양방통행을

허용하면 체육관 진출입구를 서석초교 측으로 개설하는 것은 어떨지?

- ○○○○ : 좋은 의견임. 통행제한 블라드가 제거되면 진출입구를 개설하면 좋을 것 같음
- ○○○○ : 차량통행이 허용되면 진출입구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외부 지하 주차장 진출입구 체계를 변경하지 않아도 됨

□ 안전토의 및 심의사항 의결 - 심의위원

- 진출입차량 분산을 위해 외부주차장 진출입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 주변 일방통행로의 양방통행 등 교통체계 재검토
  - 제봉로82번길(서석초교옆)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보완(유색포장, 노면표시 등)하여 양방향 통행 허용(체육관 주차장 진출입구 신설 등)

##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를 지켜주십시오.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는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공간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공연자 연습장 부속주차장의 진입출로를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내면서, 보행전용도로를 차도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이는 어린이와 주민의 보행권 침해이며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입니다. 특히 공연자 전용주차장의 진출입구가 학교 정문과 마주하고 있어서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는 도시가 보행공간을 유지하고 확대할 때 진정 교통약자들이 배려 받는 도시, 보행이 활성화되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며 이것이 문화도시 광주에 맞는 정책 이라고 확신합니다.

번호	성명	주소(동까지)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 지키기 시민모임**